

표 42에서 ‘피크닉’의 열과 발생률은 거창읍 정장리에서 11.7%, 고제면 봉계리는 14.7%이었으며 시험품종들 중에서 열과 발생률이 가장 많았다. ‘피크닉’의 동녹 발생률은 거창읍 정장리에서 2.1%, 고제면 봉계리에서는 1.1% 이었다.

표 42. ‘피크닉’ 품종의 생리장해 발생 정도

품종명	지역	연도	비정형과 (%)	열과 (%)	낙과 (%)	일소과 (%)	동녹 (%)	밀증상* (0-5)
피크닉	거창읍 정장리	’14년	0	8.3	0.3	0	6.1	0
		’15년	0.1	11.8	0.4	0	0	0
		’16년	2.4	14.9	0.4	1.1	0	0
		평균	0.8	11.7	0.4	0.4	2.1	0
	고제면 봉계리	’14년	0	22.9	0.2	0	1.0	0.1
		’15년	2.5	16.0	0.3	0	1.0	1.0
		’16년	0.9	5.3	0.2	0	1.3	0.2
		평균	1.1	14.7	0.2	0	1.1	0.4
후지 (대비)	거창읍 정장리	’14년	0.5	0	1.0	0	0	0
		’15년	3.0	2.0	0.2	0	4.0	1.0
		’16년	1.6	0	0	0	3.2	0
		평균	1.7	0.7	0.4	0	2.4	0.3
	고제면 봉계리	’14년	0.8	0	0.5	0	0	0
		’15년	2.0	1.0	0	0	1.0	1.0
		’16년	0.2	0.2	0	0	0.4	0
		평균	1.0	0.4	0.2	0	0.5	0.3

* 밀증상 : 0(무), 1(1% 이하), 3(5% 이하), 5(25% 이하)

그림 6에서 ‘피크닉’은 거창읍 정장리에서 상품수량이 2014년 2,164kg/10a 이었으나 2015년에는 인위적 수제조절로 상품수량이 감소하였다. 고제면 봉계리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품수량이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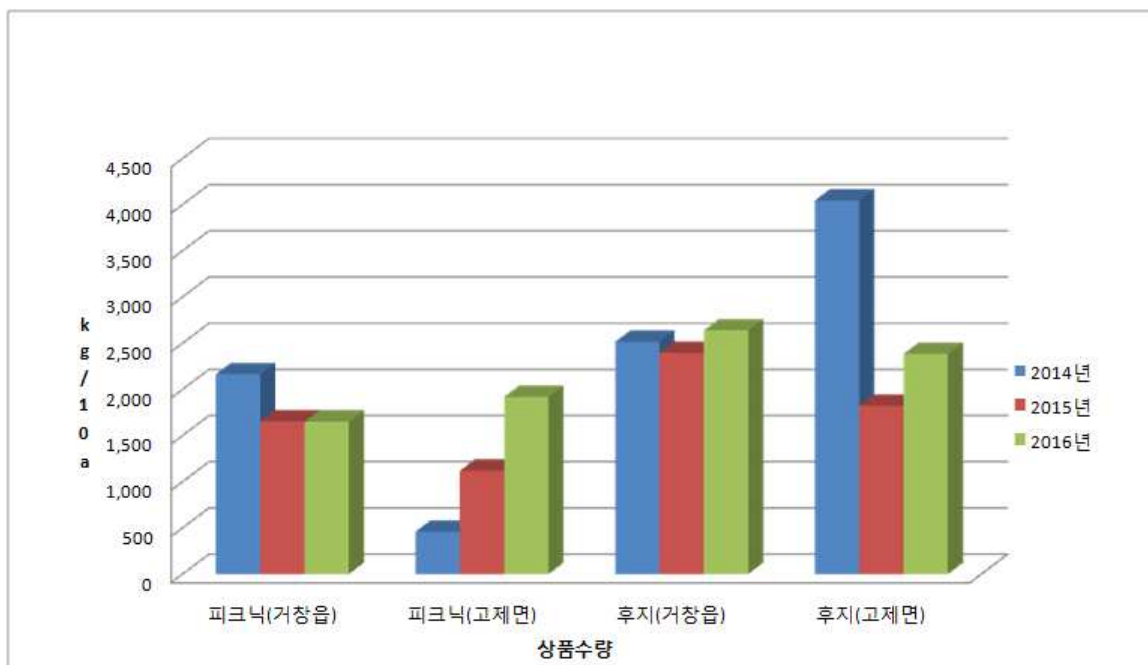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‘피크닉’ 및 ‘후지’의 상품수량